

## Impact of Parents' Attachment Behaviors on Stress Coping Ability and Suicidal Impulse Control among College Students

Min Hyang Park<sup>#</sup>, Bo Myeoung Park<sup>+</sup>, Sung Ryoung Park, Hye Sun Jeong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10 Deogam-gil, Neasu-eup, Cheongju, Chungbuk 28150, Korea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how the attachment behavior of parents affect the ability coping with stress and control over suicidal impulse among th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ealth.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developed for the impact of the parents' attachment activities on the students' stress coping skills ( $R^2 = .096$ ,  $F = 5.283$ ,  $p < .001$ ), indicat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The impact of parental attachment behavior on suicidal impulse control was also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the regression model ( $R^2 = .097$ ,  $F = 4.79$ ,  $p < .01$ ).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highlight that attachment behavior of parents can influence the stress coping ability and suicidal thought control of their children, and thus the strategy to improve parental attachment behaviors could contribute to enhancing the stress coping skills and suppressing the suicidal impulse of their children.

**Key words:** attachment behavior, stress coping skills, suicide impulse control, health department college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대학생 시기는 성  
인초기로 볼 수 있다. 그 이전고등학교까지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학업을 이어가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되고 관계를 유지하기가 쉬운 편이다. 그러나 대학이라  
는 넓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면서 그동안 타인과  
상호작용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사춘기와 성인기의 중단단계에 있는 대학  
생들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경쟁과 압력

들을 극복하고 적응하면서, 성인으로 성숙 발전해야 하  
는 과업을 안고 있다(Kim, 2011).

10대 후반과 20대에 걸쳐 있는 대학생은 신체적으로  
는 성인에 가깝게 성장하였으나, 심리·정서적으로는  
미성숙하여 내적으로 불안정하고, 외적으로는 보다 넓  
은 대인관계와 학습 및 사회적 활동을 해결해 나가는 대  
처능력이 부족하여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사소한 일상 사건에도 자신에 대한 감정이나 행동,  
삶에 대한 통제능력이 부족하여 주변의 급격한 변화나  
스트레스 상황에 쉽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문제를 인  
내하고 해결하려는 힘이 부족하여 보다 쉬운 방법으로

<sup>#</sup> The 1st author: Min Hyang Park, Tel. +82-43-210-8292, Fax. +82-43-210-8252, e-mail, [jalhanda98@chsu.ac.kr](mailto:jalhanda98@chsu.ac.kr)

<sup>+</sup> Corresponding author: Bo Myeoung Park, Tel. +82-43-210-8292, e-mail, [qkrqhaud4045@hanmail.net](mailto:qkrqhaud4045@hanmail.net)

문제해결을 하고자 충동적으로 자살을 선택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전반에 걸쳐 대학생 자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 자살률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사회적 책임인식으로 인해 이제 자살은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다. 학생 자살율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자살에 대한 예방과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 기관 및 상담 기관에서는 자살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Kang, 2012).

한편 가정은 인간이 출생하여 부모와의 만남과 상호작용을 통해 최초의 대인관계를 경험하며, 사회적 접촉을 하게 되는 곳이다. 가족의 구성원 중 특히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는 동시에 자녀의 심리, 정서 및 행동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성격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가장 좋은 마음의 안식처이며, 자녀들이 스트레스에 지친 몸과 마음을 피할 수 있는 보호기제이다(Moon, 2006: 143-157).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와 애착은 인격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여기서 형성되는 성격, 지성, 정서, 도덕성, 사회성 및 신체발달은 그의 평생을 좌우하는 기본 구조가 된다.

애착이란 자신과 가장 가까운 하나, 혹은 소수의 특정인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유대를 뜻한다(Yun, 1991: 1-25). 부모와 자녀가 맺게 되는 애착은 정서적 결속으로 정서적 안정과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며 청소년 시기를 지나 성인 초기에 이르기까지 애착 인물로 활용되어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기가 되면 표면적으로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전히 부모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에도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기반으로 작용한다(An, 2008; Kern, & Cole, 1996: 457-466; West, *et al.*, 1999: 578-582).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대인관계 갈등

에 취약하여 관련된 스트레스대처능력이 낮아진다.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아지므로,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긍정적인 자기인식과 자기 수용으로 자아정체감이 잘 형성되며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게 되어 자살충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Jung, 2008).

자살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자살충동과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혹은 치료하려는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동일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높아 자살충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자살충동과의 관계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환경적 요인이나 심리적 기제도 고려한 변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애착행위가 보건계열대학생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자살충동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변인들의 직, 간접적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자살충동 통제력을 향상시키고, 자살예방 대책과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차후 보건계열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살충동예방과 관련된 프로그램 근거 자료 제시에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의 애착행위

#### 1) 애착의 개념

영아기에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형태의 사회적 발달이 애착이다. 애착이란 영아와 양육자간에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말한다. 애착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요소로서, 애정이나 사랑과 같은 긍정적 정서의 의미를 지닌다(Ainsworth, 1979: 2-52). 영아가 특정 인물에게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그 사람과 있을 때 기쁨을 느끼고, 불안한 상황에

서 그의 존재로 인해 위안을 받는다.

## 2) 애착의 발달과 영향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은 이후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Thompson, 2000: 145-152). 일반적으로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영아는 유아기에 자신감, 호기심,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에 접어들어서도 도전적인 과제를 잘 해결하고, 좌절을 잘 참아내며,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은 이후 주변세계에 대한 신뢰감으로 확대되기도 한다(Jung, 2007: 1-12). 어머니나 양육자와 같은 애착대상과 안정애착이 형성되었을 때 유아는 고통과 불편을 느낄 때마다 자신의 애착대상을 찾게 되고, 그 대상은 유아에게 인식처가 되고,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내적 실행모형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타인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도 신뢰와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자녀가 양육자로부터 거부를 경험했거나 혼란하고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 유아는 자기 자신을 사랑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자신을 혼란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내적 실행모형을 형성하여 타인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에도 거부를 기대하거나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Cheon, 2003: 25-44). Ainsworth(1989)는 애착에 대한 전 생애적인 발달을 옹호하며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기나 성인기 동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청년기에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세계를 넓혀 감에 있어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부모와의 안정애착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와 관련된 불안, 우울, 정서적 혼란 등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Papini, et. al., 1991: 258-275). 즉 부모와의 유대관계는 정서적 지지와 친밀감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 생애를 통해 인간 발달을 촉진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애착은 상호작용 형태를 나타내는 관계 개념으로서 전

생애에 걸쳐 안전성을 보이기 때문에 개인의 발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인 실행모형은 후기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기간 동안에 활성화되며, 애착은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친밀감의 발전에 따라 성인기의 인간 발달을 촉진한다(Park, 2001).

## 2. 스트레스 대처능력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개인이 그의 환경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되는 구체적인 내적·외적 요구를 다루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지 행동적 노력으로 정의된다(Lazarus & Folkman, 1984: 55-61).

Folkman & Lazarus(1984)는 대처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으로 개념화 하였다. 첫째, 방어 또는 자아과정의 관점이다. 대처를 긴장 해소, 심리적 균형회복의 목적을 갖는 방어 체계로 보는 것은 문제해결보다 긴장 감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대처에 있어서 정서적 균형을 강조한다. 둘째, 대처를 성격적, 기질적 특성으로 보는 관점이다. 성격특성은 개인이 긴장한 상황에서 드러내는 행동 양식으로 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사용하는 대처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상황에 의해 대처가 결정된다는 상황적 관점이다. 스트레스 원의 종류에 따라 대처가 결정된다고 보는 이 관점은 주로 만성질환이나 장애 등 특별한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사용한다.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는 사람에게 있어서 전반적인 모든 측면에서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는 생활적응이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낸다. Ha(2005)는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Yoon, et. al.(2011)은 대학생활 적응에 스트레스 대처의 하위요인인 적극적대처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Kim & Cho(2008)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Kim(2011)의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중심 대처방식과 사회적지지 추구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학교적응을 잘하였고, 하위 영역별 학교적응 중 학교환경, 학교교사, 학교수업, 학교친구,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 & Jo(2006)의 대처방식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를 통해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3. 자살충동 통제력

영어로 자살을 뜻하는 ‘Suicide’는 라틴어로 ‘Sui(self)’, ‘Caede(Kill)’의 합성어로 우리말 자살의 ‘스스로 죽인다.’는 뜻과 동일하다.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살행동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여 정의가 된다. 첫째, 자살생각(suicide ideation)은 인생을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여기고 자기 파괴적인 망상을 통해 죽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사고, 정서를 말한다. 둘째, 자살시도(suicide attempt)는 자살기도라 할 수 있으며 자살을 하기 위해 조작적이고 다양한 행동을 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자살행동(suicide behavior)은 어느 정도 자살 의도를 가지고 그 동기를 인지하면서 자신에게 가하는 상해를 말한다(Seok, *et. al.*, 1980). White(1989)는 자살생각을 ‘자살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실행으로 옮기지 않은 경우’라고 정의하는데 때때로 자살 위협(눈에 보이는 자살 관련 행동이나 언어로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을 자살생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살펴볼 때, 자살 생각을 하는 것이 반

드시 자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거나 바로 자살시도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는 것만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는 부모의 애착행위가 보건계열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자살충동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가설을 도식화 하여 <Figure 1>과 같이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 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23일 까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수락한 충북에 소재하는 205명의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보건계열 대학생들에게 동의 허락을 받은 다음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자료 수집방법은 연구대상자가 설문지에 직접 답하도록 하였으며,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 중 자료가 부실한 18부를 제외하고 232부를 연구 결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7.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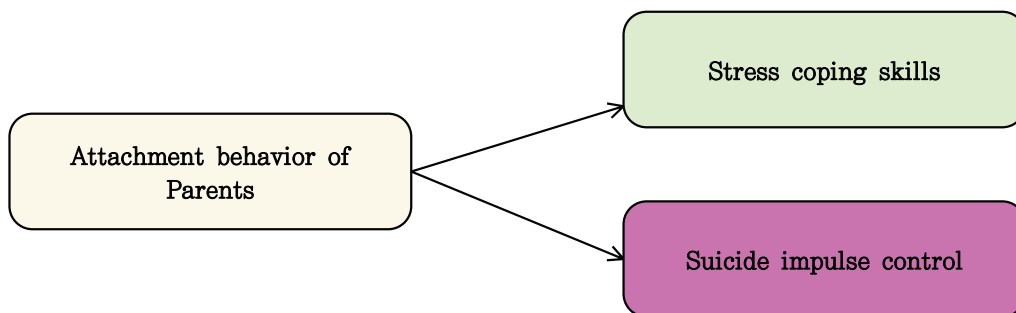


Figure 1. Framework

### 3. 연구의 윤리적 측면

연구 참여 동의서에 연구의 목적과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단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연구자만이 알 수 있도록 처리하며, 연구논문이 인쇄자료로 발표 된 후에는 소각 처리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변수는 부모의 애착행위, 스트레스대처능력, 자살충동통제력이다. 부모에 대한 애착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Armsden & Greenberg (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IPPA: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수정한 개정본인 IPPA-R을 사용하였다. 이는 부모 애착, 또래 애착 척도로 구성된 원척도를 수정하여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시켜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Armsden & Greenberg (1987)가 제작한 IPPA-R을 Ok(1998)이 번안,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는데, IPPA-R은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의 3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자살생각척도(SSI: Scale for Suicidal Ideation)는 Scale for Suicidal Ideation(SSI; Beck, Kovacs, Weissman, 1979)을 Sin(1990)등이 자기 보고형 설문지 형태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0-2점까지 채점되며 총점은 최소 0에서 최대 38점까지 채점되며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대처방식 척도는 Folkman & Lazarus(1984)가 개발한 The Way of Coping Checklist를 기초로 Lee(2007)가 수정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하위영역별로 6문항씩 총 24문항을 발췌한 척도로써, 사람과 환경 그 자체를 바꾸려는 문제 중심적 대처, 정서적 고통과 긴장을 조절하여 삶과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 사회적 지지의 추구 등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에서 '매우 그렇다(3)'로 반응하는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대처양식을 빈번하게 사용함을 의미한다.

## IV.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성별의 경우 남자가 26.3%, 여자가 73.7%로 나타났으며, 학년의 경우 1학년이 80.5%, 2학년이 19.5%로 나타났으며, 성별이 남자일 경우, 군복무 여부의 경우 예가 31.5%, 아니오가 68.5%로 나타났으며, 현 거주 형태의 경우 부모님 집에서 통학이 41.0%, 자취가 8.3%, 기숙사가 48.3%, 기타가 2.4%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주성장 지역의 경우 광역시 이상이 12.2%, 시가 77.1%, 군이 8.8%, 기타가 2.0%로 나타났으며, 현재 이성 친구 유무의 경우 있다가 42.0%, 없다가 58.0%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학력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가 3.5%, 고등학교 졸업이 52.5%, 2년제 대학 졸업이 5.1%, 4년제 대학 졸업이 32.3%, 대학원 이상이 6.6%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가 2.6%, 고등학교 졸업이 62.6%, 2년제 대학 졸업이 6.2%, 4년제 대학 졸업이 23.1%, 대학원 이상이 5.6%로 나타났으며, 부 직업의 경우 공무원이 9.8%, 사무종사자가 24.9%, 현장종사자가 9.3%, 자영업이 24.9%, 농업 종사자가 1.0%, 전문직 종사자가 15.1%, 무직이 0.5%, 기타가 14.6%로 나타났으며, 모 직업의 경우 자영업이 33.3%, 전문직 종사자가 44.4%, 기타가 22.2%로 나타났다.

가정 월수입 정도의 경우 200만원 이하가 11.4%, 201~300만원이 21.1%, 301~400만원이 30.3%, 401~500만원이 20.0%, 500만원 이상이 17.3%로 나타났으며, 형제 수의 경우 5명 이상이 2.0%, 4명이 1.5%, 3명이 17.6%, 2명이 69.8%, 독자가 9.3%로 나타났으며, 형제 구성의 경우 형제가 13.2%, 남매가 50.7%, 독자가 10.7%, 자매가 25.4%로 나타났으며, 종교의 경우 기독교가 28.3%, 천주교가 12.7%, 불교가 9.8%, 무교가 45.9%, 기타가 3.4%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1.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 Information(n=205)

Variable Name	Categories	Frequency (person)	Percentage(%)
Gender	Male	54	26.3%
	Female	151	73.7%
Grade	1st	165	80.5%
	2nd	40	19.5%
County resident status	School house	84	41.0%
	cooking food for oneself	17	8.3%
	hostel	99	48.3%
	other	5	2.4%
Growth area	Metropolitan City	25	12.2%
	City	158	77%
	county	18	8.8%
	other	4	2.0%
Best friend	Yes	86	42.0%
	No	119	58.0%
Father Education	≤High school	111	56%
	college	10	5.1%
	University	64	32.3%
	Graduate school	13	6.6%
Mother Education	≤High school	127	65.2%
	college	12	6.2%
	University	45	23%
	Graduate school	11	5.6%
Father Occupation	civil servant	20	9.7%
	office workers	51	24.9%
	Field workers	19	9.3%
	self-employed	51	24.9%
	farming, fishing	2	1.0%
	professional workers	31	15.1%
	unemployed	1	0.5%
	Other	30	14.6%
Mother Occupation	self-employed	3	33.3%
	professional workers	4	44.5%
	Other	2	22.2%
Monthly Income(10,000won)	≤200	21	11.4%
	201-300	39	21%
	301~400	56	30.3%
	401~500	37	20.0%
	501	32	17.3%
Brothers	5	4	2.0%
	4	3	1.5%
	3	36	17.6%
	2	143	69.6%
	only son	19	9.3%
Brothers Composition	brother	27	13.2%
	brother and sister	104	50.7%
	only son	22	10.7%
	Sisters	52	25.4%
Religion	Christian	58	28.1%
	Catholic	26	12.7%
	Buddhist	20	9.8%
	None	94	45.9%
	Other	7	3.4%
	total	205	100.0%

2.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특정변수들의 신뢰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복수항목들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의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를 이용하였다. 사회과학에서는 alpha값 0.6 이상이면 척도의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83~.94로 나타나 신뢰성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s	items	Cronbach's $\alpha$
Mother Attachment behavior	15	.89
Mother Negative attachment behavior	8	.88
Father Positive attachment behavior	15	.94
Father attachment behavior	8	.88
Negative stress coping skills	19	.88
Positive stress coping skills	9	.83
Suicide impulse control	19	.86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개념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의 항목에 대해서는 척도 간 상관관계인 요인적재치가 0.4 이하인 항목은 연구에서 제외하였으며, 요인의 구분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 1이상을 요인으로 추출되도록 하였고, 요인분석방법은 요인추출단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성분 분석,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 2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 간에는 아래 <Table 3>에서와 같이 판별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인분석을 위해 설정된 항목들이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가를 분석하는 KMO(Kaiser-Mayer-Olkin)값도 .940(아버지의 애착행위), .902(어머니의 애착행위), .805(스트레스 대처방식), .861(자살충동 통제력)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선정이 양호하다고 진단할 수 있다.

Table 3. Construct validity of analysis

Measurement of variables	component	
	1	2
Attachment behavior of parents		
My father (mother) encourages me to talk about my problems.	.792(.730)	-.122(-.062)
My father (mother) accept me as I am.	.792(.712)	-.282(-.365)
My father (mother) understands me.	.790(.709)	-.279(-.172)
My father (mother) helps me to better understand myself.	.789(.704)	-.300(-.180)
My father (mother) tries to understand me when I am angry with something.	.772(.685)	-.211(-.084)
I can count on my father (mother) when I want to shake off the burden in my mind.	.735(.613)	-.254(-.278)
When I discuss with my father (mother), he considers my opinion.	.723(.583)	-.380(-.369)
My father (mother) notice when I am sore with something.	.719(.582)	-.051(-.281)
My father (mother) trusts my judgment.	.716(.571)	-.306(-.176)
If my father (mother) knows that I am annoyed with something, then he asks me about it.	.690(.566)	-.224(-.233)
I would like to accept the opinion of my father (mother), when I am concerned about something.	.685(.553)	-.158(-.029)
My father (mother) respects my feelings.	.682(.549)	-.361(-.053)
I talk to my father (mother) about my difficulties and troubles.	.659(.515)	-.022(-.466)
I trust my father (mother).	.631(.501)	-.424(-.226)
I think that my father fulfills his duty as a father (mother).	.590(.465)	-.387(-.435)
I feel bad easily when I stay with my father (mother) together.	-.231(-.191)	.833(.836)
I feel anger at my father (mother).	-.277(-.163)	.821(.831)
I feel myself shameful and foolish when I discuss with my father (mother) on my own problems.	-.142(-.167)	.806(.792)
I do not get the attention from my father (mother).	-.246(-.102)	.802(.743)
I wish that another person were my father (mother).	-.244(-.099)	.708(.716)
I think it has no use to reveal my feelings to my father (mother).	-.345(-.279)	.630(.626)
My father (mother) expects too much from me.	.001(-.370)	.518(.618)
My father (mother) does not understand what I am going through these days.	-.297(-.121)	.467(.486)
Eigenvalues	10.947(8.564)	2.499(2.460)
R2	35.890(25.605)	22.573(22.324)
commonality	35.890(25.605)	58.463(47.929)

Kaiser-Meyer-Olkin=.940, Bartlett test of sphericity=3295.811, df=253, sig=.000\*\*\* Kaiser-Meyer-Olkin=.902, Bartlett test of sphericity 2290.052, df=253, sig=.000\*\*\*

Measurement of variables	component	
	1	2
stress coping strategies		
I think it would be a good experience.	.745	-.198
I am saying alone repeatedly 'everything will go mushrooming'.	.727	-.079
I aim to overcome the problem clearing my mind and concentrating my spirit.	.660	.049
I think it is a good chance for the development of myself.	.637	-.207
I would recall the past experience of overcoming and make avail of it.	.634	.009
I would console myself thinking that it is not the worst in dealing everything.	.631	-.040
I would recall the pleasant and fun memories.	.616	-.192
I think that can be a good opportunity to test myself.	.609	.108
I tried to nod the situation with cool mind.	.599	.139
I go out, meet friends or read a book.	.560	.032
I aim to overcome through proper rest and the regulation of living pattern.	.526	.037
I will look at the issue keeping my composure.	.519	-.012
I would hold my feelings and think logically	.514	-.047
I make a great shape through regular life.	.504	-.048
I face the match emptying my mind.	.499	.264
I would grasp the issue calmly and handle it carefully.	.497	-.174
I engross myself more in training or practice.	.480	.185
I try to understand the views of others (fellow, coach).	.471	-.195
I do not dwell on the past days too much.	.418	.166
I do not want to encounter people.	-.198	.781
I do not want to talk with anyone if possible.	-.148	.779
I do not think about any fight or training.	.026	.729
I would mutter myself or curse.	-.057	.641
I watch TV or videos all day long.	-.011	.606
I do not participate in practice or a game for the time being.	-.039	.601
I leave everything to fate.	.125	.585
I blame the people (colleagues) that caused the problem.	.050	.580
I show irritation or annoyance at someone.	.054	.549
Eigenvalues	6.490	4.168
R2	22.943	15.121
commonality	22.943	38.064

Kaiser-Meyer-Olkin=.805, Bartlett test of sphericity =2417.779, df=378, sig=.000\*\*\*

Measurement of variables	component
	1
Suicide impulse control	
How often are you struck with the idea that you want to commit suicide?	.755
Do you have the desire to actually attempt suicide?	.685
Did you plan any concrete method when thinking deeply about suicide?	.674
How long does the idea or the desire to commit suicide, last?	.665
Whether do you have the rather passive desire for suicide, if not so actively?	.652
Are you really confident in a suicide attempt?	.648
Have you ever talk to other people about suicide ? Or did you cheat them or hide the thought?	.615
Any reason for considering a suicide deeply?	.615
Have you ever written an article (will) to commit suicide?	.566
What about your attitude to suicide thoughts or wishes?	.536
If there is an obstacle to actually trying to commit suicide? (Eg, family, religion, thought of being unable to live there again and so on)	.520
Have you prepared actually anything in order to carry out a suicide.	.517
The desire to die?	.515
What is the last thing you have done by expecting of death?	.501
The desire to live?	.500
What is the reason why you want to live / why you want to die?	.444
Can I control the urge to want to commit suicide?	.436
If you think about how to commit suicide deeply, then do you think how it feasible realistically is, and also think that there is the chance to try it?	.357
Do you think you are able to commit suicide?	.327
Eigenvalues	6.071
R2	31.951
commonality	31.951

3. 연구개념 기술통계

연구개념의 평균 분포를 기술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애착행위가 3.72±.48 점, 어머니의 부정애착행위가 2.08±.77 점, 아버지의 긍정애착행위가 3.60±.63 점, 아버지의 부정애착행위가 2.23±.83 점, 스트레스 긍정대처가 3.38±.48 점, 스트레스 부정대처가 2.71±.67 점, 자살충동이 .47±.30 점으로 나타났다.

4. 상관관계 분석

연구대상자의 어머니의 긍정적 애착행위와 어머니의 부정적 애착행위, 아버지의 긍정적 애착행위, 아버지의 부정적 애착행위, 스트레스 긍정대처간의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부정적 애착행위와 자살충동, 아버지의

부정적 애착행위와 자살충동, 스트레스 부정대처와 자살충동 사이에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어머니의 긍정적 애착행위와 스트레스 부정대처, 어머니의 긍정적 애착행위와 자살충동, 어머니의 부정적 애착행위와 스트레스 긍정대처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5. 가설검증

본 연구는 부모자녀 애착행위가 스트레스 긍정대처와 자살충동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들을 검증하는데 있어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1. 부모자녀 애착행위가 스트레스 긍정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N	Minimum	Maximum	Mean	SD
Parents of attachment behavior	Mother of the positive attachment behavior	205	2.33	4.67	3.72	.48
	Mother of the Negative attachment behavior	205	1.00	4.75	2.08	.77
	Father of positive attachment behavior	205	1.00	4.67	3.60	.63
	Father of Negative attachment behavior	205	1.00	4.75	2.23	.83
Positive stress coping strategies		205	1.84	5.00	3.38	.48
Negative stress coping strategies		205	1.11	5.00	2.71	.67
Suicide impulse control		183	.21	1.42	.47	.30

Table 5. Correlation analysis(Pearson's correlation)

Variable		Mother of the positive attachment behavior	Mother of the Negative attachment behavior	Father of the positive attachment behavior	Father of the Negative attachment behavior	Positive stress coping	Negative stress coping	suicide impulse control
Parents of attachment behavior	Mother of the positive attachment behavior	1						
	Mother of the Negative attachment behavior	-.550 (**)	1					
	Father of the positive attachment behavior	.423 (**)	-.242 (**)	1				
	Father of the Negative attachment behavior	-.430 (**)	.655 (**)	-.588 (**)	1			
stress coping skills	Positive stress coping skills	.291 (**)	-.146 (*)	.147 (*)	-.188 (**)	1		
	Negative stress coping skills	-.241 (**)	.334 (**)	-.124	.298 (**)	-.062	1	
suicide impulse control		-.249 (**)	.235 (**)	-.131	.262 (**)	-.245 (**)	.223 (**)	1

Table 6. Results of a multi-regression analysis 1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eta$	Standard error	$\beta$			Tolerance	VIF
		2.439	.414		5.886	0.000		
Parents of attachment behavior	Mother of the positive attachment	.307	.087	.307	3.533	.001**	.598	1.672
	Mother of the negative attachment	.073	.065	.117	1.124	.262	.418	2.390
	Father of the positive attachment	-.039	.070	-.050	-0.548	.584	.536	1.865
	Father of the negative attachment	-.095	.065	-.162	-1.465	.145	.368	2.714
R <sup>2</sup> =.096, F=5.283, p=.000***								

부모자녀 애착행위가 스트레스 긍정대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R<sup>2</sup>=.096, F=5.283,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2.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통제 하에 부모자녀 애착행위가 스트레스 긍정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통제 하에 부모자녀 애착행위가 스트레스 긍정대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스트레스 긍정대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식은 (R<sup>2</sup>=.165, F=3.437, p<.001)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부모자녀 애착행위를 추가한 독립변인이 스트레스 긍정대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R<sup>2</sup>=.247, F=3.980, p<.001)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Results of a multi-regression analysis 2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eta$	Standard error	$\beta$			Tolerance Limit	VIF
Constant		3.424	.346		9.891	.000		
Male		.125	.092	.115	1.366	.174	.676	1.479
Grade		.151	.089	.122	1.700	.091	.934	1.071
Gender dummy		.300	.141	.177	2.129	.035*	.693	1.443
Current residence Form a pile (school = 1)		-.098	.073	-.098	-1.336	.183	.887	1.128
The main growth areas dummy adolescence (City = 1)		-.137	.109	-.091	-1.251	.212	.918	1.090
Your friend rational existence dummy current (U = 1)		.042	.070	.043	.602	.548	.961	1.041
Household monthly income level		.080	.028	.204	2.842	.005**	.933	1.072
Brother		-.081	.056	-.119	-1.453	.148	.719	1.390
Brothers configuration stack (Brothers = 1)		-.158	.129	-.102	-1.229	.221	.692	1.446
Religious dummy (Christian = 1)		-.014	.025	-.039	-0.556	.579	.988	1.012
R <sup>2</sup> =.165, F=3.437, p=.000***								

(constant)	2,887	.532		5,426	.000			
Gender dummy (M = 1)	.155	.089	.142	1,740	.084	.662	1,510	
Grade	.133	.085	.107	1,557	.121	.930	.1075	
If the Gender, Military Whether dummy (serving = 1)	.227	.141	.134	1,606	.110	.639	1,566	
Living current pile (Part recruit school = 1)	-.103	.071	-.104	-1,467	.144	.879	1,137	
The main growth areas dummy adolescence (City = 1)	-.150	.106	-.099	-1,420	.157	.906	1,103	
Your friend rational existence dummy current (U = 1)	.048	.067	.049	0,716	.475	.955	1,047	
Household monthly income level	.064	.028	.161	2,235	.027*	.849	1,178	
Brother	-.098	.054	-.143	-1,793	.075	.699	1,430	
Brothers configuration stack (Brothers = 1)	-.143	.125	-.093	-1,146	.253	.677	1,477	
Religious dummy (Christian = 1)	-.015	.024	-.041	-0,604	.546	.982	1,019	
Parents of attachment behavior	Mother of the positive attachment	.258	.092	.251	2,796	.006**	.548	1,825
	Mother of the negative attachment	.078	.066	.121	1,171	.243	.416	2,402
	Father of the positive attachment	-.046	.075	-.058	-0,611	.542	.487	2,053
	Father of the negative attachment	-.131	.065	-.218	-2,007	.046*	.375	2,670

R<sup>2</sup>=.247, F=3,980, p=.000\*\*\*

가설 2-1. 부모자녀 애착행위가 자살충동 통제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모자녀 애착행위가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R<sup>2</sup>=.097, F=4.795,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2.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통제하에 부모자녀 애착행위가 자살충동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통제하에 부모자녀 애착행위

가 자살충동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살충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은 (R<sup>2</sup>=.012, F=.198,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부모자녀 애착행위를 추가한 독립변인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R<sup>2</sup>=.118, F=1.456,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Results of a multi-regression analysis 3

Variables	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Collinearity statistics		
	β	Standard error	β			Tolerance Limits	VIF	
Constant	.606	.271		2,238	.026			
Parents of attachment behavior	Father of the negative attachment	-.115	.056	-.183	-2,041	.043*	.633	1,579
	Father of the negative attachment	.002	.041	.005	.045	.965	.421	2,373
	Father of the positive attachment	.030	.045	.064	.674	.501	.571	1,753
	Father of the negative attachment	.081	.042	.224	1,944	.053	.380	2,629

R<sup>2</sup>=.097, F=4,795, p=.001\*\*

Table 9. Results of a multi-regression analysis 4

Variables	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ρ	Collinearity statistics		
	β	Standard error	β			Tolerance Limits	VIF	
Constant	.284	.238		1.195	.234			
Male grade	-.035	.064	-.053	-.550	.583	.672	1.489	
If the Gender, Military Whether dummy (serving = 1)	.017	.062	.023	.273	.785	.907	1.102	
Living prefecture dummy (part Recruitment School = 1)	-.045	.100	-.043	-.454	.650	.695	1.439	
The main growth areas dummy adolescence (City = 1)	.019	.052	.031	.364	.716	.857	1.167	
Your friend whether the current opposite sex File (u = 1)	.010	.075	.011	.138	.890	.909	1.101	
Household monthly income level	-.006	.049	-.010	-.122	.903	.960	1.041	
Brother	.005	.020	.020	.244	.808	.923	1.083	
Brothers configuration stack (Brothers = 1)	.031	.038	.076	.0812	.418	.712	1.404	
Religious dummy (Christian = 1)	.055	.090	.058	.605	.546	.691	1.448	
	-.001	.018	-.005	-.064	.949	.991	1.009	
R <sup>2</sup> =.012, F=.198, p=.996								
(constant)	.348	.363		.959	.339			
Gender dummy (M = 1) grade	-.065	.062	-.099	-1.050	.295	.655	1.527	
If gender is male, military	.026	.060	.035	.433	.666	.901	1.110	
Living prefecture dummy (part Recruitment School = 1)	.023	.102	.022	.224	.823	.617	1.622	
The main growth areas dummy adolescence (City = 1)	.011	.051	.019	.227	.821	.846	1.181	
Your friend rational existence dummy current (U = 1)	.017	.073	.019	.233	.816	.898	1.113	
Household monthly income level	-.010	.047	-.016	-.206	.837	.957	1.045	
Brother	.014	.020	.057	.690	.492	.834	1.199	
Brothers configuration stack (Brothers = 1)	.041	.037	.101	1.106	.271	.690	1.449	
Religious dummy (Christian = 1)	.085	.088	.090	.969	.334	.675	1.482	
	-.002	.017	-.008	-.105	.917	.978	1.022	
Attachment behavior Of parents	Mother of the positive attachment	-.112	.064	-.177	-1.753	-.82	.569	1.758
	Mother of the negative attachment	.010	.046	.026	.214	.831	.405	2.469
	Father of the positive attachment	.015	.051	.032	.299	.765	.505	1.979
	Father of the negative attachment	.080	.045	.218	1.777	.078	.382	2.617
R <sup>2</sup> =.118, F=1.456, p=.134								

V.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애착행위가 보건계열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와 자살충동통제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C도에 소재한 보건계열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상관관계 분석결과 어머니의 부정적 애착행위와 자살충동, 아버지의 부정적 애착행위와 자살충동, 스트레스 부정적 대처와 자살충동 사이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어머니의 긍정적 애착행위와 스트레스 부정적 대처는, 어머니의 긍정적 애착행위와 자살충동, 어머니의 부정적 애착행위와 스트레스 긍정적 대처

사이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자살 충동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Moon(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즉,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를 더 많이 하게 되어 스트레스요인으로부터 최소화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자살충동은 적을 것이다.

둘째, 부모자녀 애착이 긍정적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 부모애착이 낮은 대학생의 경우 부정적인 타인표상으로 인해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불친절하고 고통스러운 관계경험을 예상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Jang(2000)은 안정된 애착은 대인간 유대는 물론 개인의 대처기술을 증진시키고 불안을 감소시켜 환경적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건설적인 전략을 발달시키게 한다고 하여 본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스트레스대처나 정서적 고통에 완충하는 역할을 하며, 타인과의 유대관계 및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처기술의 발달을 이루게 하므로 성숙한 사회적 기술발달에 영향을 주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대학생이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본인 및 타인에 대해 왜곡된 지각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초점을 두어 중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부모자녀 애착행위가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자살을 예방하는 한 방법으로 대학생에게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회적응도를 높여야 하겠다. 학교생활이 긍정적인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Kim &

Lee, 2008: 423-441; Beak, 2007: 357-373; Woo & Kim, 2011: 219-240). 대학생에게 주어진 역할이 학업뿐만 아니라 경제적 준비, 사회인으로서의 준비 등 다양한 역할이 주어질 수 있으나 먼저 대학생의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돕고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에서의 다양한 과제가 대학생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과업수행에 있어서 끊임없는 격려와 칭찬, 그리고 인내와 기다림의 버터주기(holding)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자살을 예방하고 개입하는데 있어 우울, 부정적정서, 사회적응과 자살 등의 이해가 수반된 현장전문가가 배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실천가의 전문적인 개입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전문직으로 진입하기 전 학생들의 다양한 생애주기와 위기관점과 실천접근과 논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청소년위기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이 문제들에 대한 인식증진 및 예방, 조기개입을 위한 행동지침을 습득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현장실천가에게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자살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적절한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충북에 소재한 일부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스트레스 대처능력이나 자살충동을 예측하기 위한 변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References

- Ainsworth, M. D. S. 1979. Attachment as Related to Mother-infant Interaction. *Advances in the Study of Behavior*. 9: 2-52.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 Psychologist*. 44(4): 709-716.
- Argyle, M. 1984.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Behavior*. New York: Penguin Books.
- Baek, Hye Jeong. 2007. The Effects of Self Control, Self Reliance, and Attachment to Teacher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9(2): 357-373.
- Cheon, Gwi Sun. 2003. The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to Parents, Personality Traits and Career Consciousness Matur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16(2): 25-44.
- Drabek, Thomas E. 1985. Managing the Emergency Respons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 85-92.
- Ha, Ji Youn. 2005 The Relationships among Leisure Motivation, Leisure Stress Coping, and the University Life Adjustment in Leisure Sports of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s*. 18(3): 373-391.
- Ha, Jung Hee and Han Ik Jo.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Perfectionism, Stress, the Ways of Stress Coping, Self-Efficacy, College Adjust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2): 595-611.
- Reinherz, Helen Z., Jennifer L. Tanner, Sasha R. Berger, William R. Beardslee, and Garrett M. Fitzmaurice. 2006.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s Predictive of Psychopathology, Suicidal Behavior, and Compromised Functioning at Age 30.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3(7): 1226-1232.
- Jung, Ok Bun. 2007.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4(3): 1-12.
- Jung, S. H. 2008.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Self-identity on Intimacy among Christian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sine University.
- Kang, Seok Hwa. 2012.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icide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 Thesis for a Doctorate. Cheongju University.
- Kern, L. R., L. Kelpac, and A. K. Cole. 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readolescent's Perception of Security in the Child-Mother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2: 457-466.
- Kim, Ah Young and Myung Hee Lee. 2008.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Depressive Tendency, and School Adjustment in Middle- and Highschool.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2(2): 423-441.
- Kim, Han Na. 2011. The Relationship of Stress Coping Style and Suicide Ideation among Parent's Attachment on Th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Nazarene University.
- Kim, Hyung Yul. 1987. Approaches to the Study of Emergency Management in Terms of Cognitive Relativism with Reference to the Systems and Situational Approaches.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1(1): 1-19.
- Kim, Seok Il and Eun Jeong Cho. 2008. The Relationship among Dancesports Players' Stress Coping Strategy and Enjoyment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34: 1421-1438.
- Kim, Seung Yun. 2011. The Effects of Adolescents' Self-positivity Bia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Their School Adjustment.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Lazarus, R. S. and S. Folkman. 1984. Stress and coping. *A Model and Overview*. 55-61.
- Lazarus, R. S. and S. Flokman. 1984. If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 Lazarus, R. S. and S. Fol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ee, Chun Hui. 2007. The Causes of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Among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Daeguhaany University.
- Lee, Jae Eun. 2000. A Study of Crisis Management Policy in Korea: An Analysis of Multi-organizational Relationships in the Implementation Structure. Thesis for a Doctorate. Yonsei University.
- Moon, Kyeoung Suk. 2006.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Suicidal Impulse in Adolescence: Mediating Role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Child Studies in Diverse Contexts*. 27: 143-157.
- Nam, Yun Yeong. 2008. Suicidal Impulse in Korean Society-Coping

- and Understanding of Mental Health Aspects. *Studies on Life and Culture*. 11: 1-18.
- Papini, D. R., L. A. Roggman, and J. Anderson. 1991. Early-adolescent Perceptions of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A Test of the Emotional-distancing and Buffering Hypothese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2): 258-275.
- Park, Su Gil. 2001. A Study on Family Variables and Personal Variables Affecting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Thesis for a Doctorat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Sin, M. S. and K. J. Oh, 1993. Identity Crisis and Maladaptive Behavior in Adolescence. *Journal of Student Guidance Research*. 11: 71-84.
- Thompson, R, A. 2000. The Legacy of Early Attachments. *Child Development*. 71: 145-152.
- West, M. L., S. W. Spreng, S. M. Rose, and K. S. Adam. 1999.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felt Security and History of Suicidal Behaviours in Clinical Adolescent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4: 578-582.
- Wo, Chae Young and Pan Hee Kim. 2011. The Multidimensional Structure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4): 219-240.
- Yoon, Hyang Suk, Yoon Mee Hwang, Duck Bum Kim, and Sung Hwa Jang. 2011. The Effects Self-differentiation Stress Coping Methods and Mental Health on Life Adjustment in University.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10(2): 1-25.
- Yu, Eun Hui. 1991. The Developmental Patterns of Attachment and Autonomy as Related to Young Adults' Marital Satisfac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9(2): 333-334.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강석화. 2012.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석일, 조은정. 2008. 맨스스포츠 선수의 스포츠재미와 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4: 1421-1438.
- 김승윤. 2011. 청소년의 자기긍정 편향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이명희. 2008. 청소년 심리적 욕구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교육심리연구*. 22(2): 423-441.
- 김한나. 2011.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 나사렛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윤영. 2008. 한국사회의 자살: 정신보건적 측면에서의 이해와 대처. *생명연구*. 11: 1-18.
- 문경숙. 2006.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 *한국아동학회*. 27: 143-157.
- 박수길. 2001.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혜정. 2007. 자아통제, 자기신뢰 및 교사애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57-373.
- 우채영, 김판희. 2011.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변인들 간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청소년학연구*. 18(4): 219-240.
- 유은희. 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 유형과 결혼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333-334.
- 윤향숙, 황윤미, 김덕범, 장성화. 2011. 대학생의 자아분화,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신건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10(2): 1-25.
- 이춘희. 2007. 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2007.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4(3): 1-12.
- 천귀순. 2003. 초등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성격특성과 진로의식성숙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6(2): 25-44.
- 하정익, 조한익. 2006. 완벽주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7(2): 595-611.
- 하지연. 2005. 대학 여가 스포츠활동 참여자의 여가동기와 여가스트레스대처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8(3): 373-391.

## 부모의 애착행위가 보건계열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자살충동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부모의 애착행위가 보건계열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와 자살충동통제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실시하였다. 첫째, 부모의 애착행위가 스트레스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한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 $R^2=.09$ ,  $F=5.28$ ,  $p<.001$ )로 99.9%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애착행위가 자살충동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 $R^2=.097$ ,  $F=4.79$ ,  $p<.01$ )로 99%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애착행위가 스트레스대처능력과 자살충동통제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의 애착행위를 향상시키는 전략은 스트레스대처능력을 길러 주고 자살충동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주제어 : 부모애착행위, 스트레스대처능력, 자살충동 통제력, 보건계열 대학생

Profiles **Min Hyang Park** : She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Cheongju, Korea. And She finished completing of nursing science doctor's course in Korea University. Her current research focuses on the nursing organization management, conflict management, and child's health problems(jalhanda98 @chsu.ac.kr).

**Bo Myeoung Park** : She is a University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at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Cheongju, Korea. Her Research interest in Neonatal Care(qkrqhaud4045@hanmail.net).

**Sung Ryoung Park** : He is a University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at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Cheongju, Korea. His Research interest in Emergency Care(ghdlt66@naver.com).

**Hye Sun Jeong** : She is a University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at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Cheongju, Korea, Her Research interest in Chronic Disease Care(38jhs@naver.com).